16세기의 사림형 관료 류중영(柳仲郢)의 삶*

구 완 회**

Ⅰ. 머리말
Ⅱ. 가문적 배경과 언관 활동
1. 사림 가문에서의 성장사 시절
2. 『소학』과 풍산류씨 집안의 지향
정 활동
Ⅲ. 관료 경력대읍 수령 시절
1. 무록관 시절막 관력
2. 성균관의 하급 관료 시절
3. 전곡·사송 아문 경력
4. 유신현감과 관력 공백기
5. 중견 문관으로서의 관력과 언관 활동
6. 변지 사정을 익힌 의주목사 시절
7. 황해도 관찰사로서의 도정 활동
8. 전문 목민관으로 활약한 대읍 수령 시절
9. 경관으로 마무리한 마지막 관력
Ⅳ. 맺음말

국문초록

류중영은 영남의 사림적 지향을 지닌 가문에서 생장했다. 그의 집안인 풍산류씨는 사림파의 지도자인 김종직의 선산김씨 가문, 안동에 일찍부터 터를 잡은 안동권씨 집안, 고위관료 출신으로 청백리의 명예를 얻은 안동김씨 김계행의 집안과 대를 이어 혼인하면서 안동권에서 유력한 가문으로 발돋움했다. 또한 그의 집안은 대대로 『소학』에서 가져온 이름을 사용한 것에서 보듯이, 개혁을 추구했던 사림파가 지향했던 『소학』의 가치를 존중하는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 급제한 후 류중영은 성균관에서 하급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사송

* 이 논문은 2016년도 세명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kuwanhoe@gmail.com

과 전곡을 담당하는 중견관료를 거치면서 실무관료로서의 자질을 길렀고, 유신현감이나 (중앙의) 경관직을 거치면서 원칙론적인 업무수행으로 명성을 얻는 대신 상급자들과 자주 충돌했다. 의주목사를 거치면서 변지 사정을 현장에서 익혔고, 황해도관찰사로 도정을 주도했다. 정주·청주목사로서 대읍 수령직을 수행했고, 경직으로 복귀하여 좌부승지로 재직 중 사망했다.

권력자들과의 갈등 때문에 류중영은 중앙 관직보다는 지방관직을 전전한 전문 지방관에 가깝다. 그는 관료생활을 통해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실천하고 보급하는 일에 힘썼다. 향교수리, 서원창설,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부조, 직접 가르치기, 이언적·이황의 저술을 인쇄하여 보급하는 일에 헌신하였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지배체제의 한계 때문에 그가 현장에서 추진한 정책의 대부분은 일시적인 것이요, 후임자에 의해 번복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권력자들과 갈등 구조 속에서 원칙을 지키고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사적으로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지 않는 온건노선을 지켰다. 이 점은 군자·소인논쟁을 통해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개혁을 추구하던 선배 사림파의 좌절로부터 배운 것이다. 훗날 그의 아들 류성룡이 현실에 기반한 경세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주제어
류중영, 사림파, 소학, 군자-소인논쟁, 류성룡

Ⅰ. 머리말

류중영(柳仲郢: 1515~73, 본관은 豊山, 자는 彦遇, 호는 立巖)은 오랫동안 역사학계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하회 마을의 대표적 건축인 양진당(養眞堂)의 사랑채에 걸려있는 '입암고택(立巖古宅)'이라는 현판이 그의 아호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것, 임란을 극복한 명재상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아버지이며, 뒷날 풍산류씨의 종가에서 불천위(不遷位)로 떠받들여졌던 것 외에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영남 사림파에 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류중영은 점차 역사가의 관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영남사림파에 관한 연구를 개척한 이수건은 일찍이 하회(河回)의 풍산류씨(豊山柳氏)가에 관하여 주목했다. 복잡한 가계를 추적하여 어떤 가문적 · 학문적 · 경제적 배경을 가졌는지를 점검하여 연구의 기초를 놓은 것은 그의 공이다.[1] 그 뒤에 이우성이 류중영의 『연경행록(燕京行錄)』을 학계에 보고했고,[2] 이영춘이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그의 생애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했다.[3] 김명자는 풍산류씨 집안에서 이뤄진 종법(宗法) 수용에 관하여 검토하면서 이황(李滉, 1501~70)의 영향을 받은 류중영의 선구적인 역할을 주목하였고,[4] 김학수는 최근 연구에서 풍산류씨가가 학자 집안이 되는 과정에 사닥다리 구실을 한 류중영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5]

이런 과정에 류중영 관련 기록도 수습되었다. 문중에서 발간한 『입암문집(立巖文集)』(1994)과 뒤늦게 발견한 『연경행록』을 포함하여 국역 출판한 『입암일고(立巖逸稿)』(2005)는 류중영에 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

1)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출판부, 1979. 영남 사림파에 관한 일련의 연구는 나중에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일조각, 1995)로 종합되었다.
2) 이우성, 『한국고전의 발견』, 한길사, 1995.
3) 이영춘, 「류중영의 <연경행록>」, 『조선시대사학보』32, 2005.
4) 김명자, 「16~17세기 풍산류씨가의 종법 수용 과정」, 『대구사학』96, 2005.
5) 김학수, 「17세기 서애 류성룡가의 학풍과 그 계승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55, 2014.

다.[6]

그럼에도 류중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중 중요한 부분은 전문적인 관료로 살다 간 그의 삶에 관한 것이다. 물론 번역본의 출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충족되었지만, 잘못된 번역에 따른 오해가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 류중영이 관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딪쳤던 여러 사건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는지에 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진 일이 없었다.

필자는 관료로서의 류중영을 부각하기 위하여 우선 류운룡(柳雲龍)이 작성한 「행년기(行年記)」를 기초로 류중영의 삶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7] 미화된 부분이 적지 않겠지만 그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본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문의 성장과 그의 삶을 조선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지금까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소학(小學)』 수용과 관련한 가문의 성장 과정에도 주목했다. 아울러 관료 경력을 차례로 검토하는 한편, 관료 생활에서 나타난 특징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중기의 문신 관료들이 어떤 관력을 거쳤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글이 영남의 대표적인 한 사족 가문의 성장 과정과 조선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가문적 배경

1. 사림 가문에서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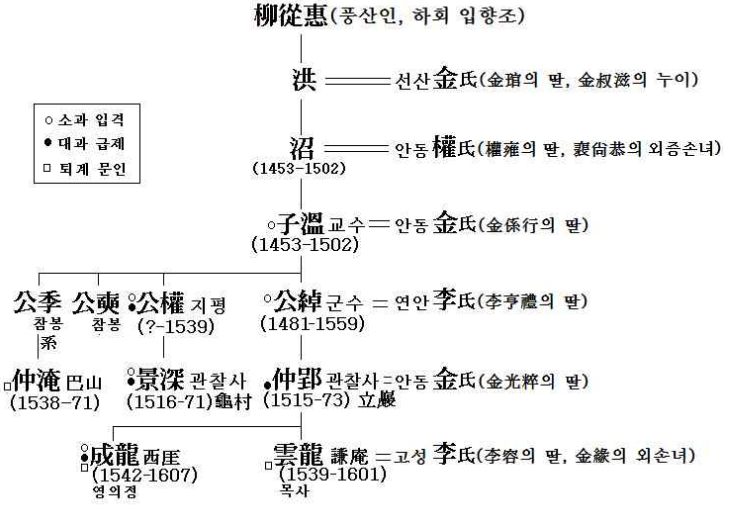
풍산류씨 집안이 안동권에서 주목받게 된 최초의 실마리는 류중영의 5대조부인 류종혜(柳從惠)가 풍산의 하회에 자리 잡으면서부터이다. 그의 아들인

6) 풍산부원군기념사업회, 『입암일고(立巖逸稿)』, 현빈기획, 2006. 그러나 잘못 번역한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 이런 문제는 개정판에서도 거의 교정되지 않았다. 개정판은 2015년에 풍산류씨문물보존회에서 발행했다.

7) 이하 「행년기」에 따른 서술 부분에서는 각주를 생략함.

류홍(柳洪)은 선산에 거주하던 진사 김관(金琯, 본관 선산)의 딸과 혼인했다. 김관의 아들이 김숙자(金叔滋: 1389~1456)이니 류홍과 김숙자는 처남-매부 사이가 된 것이요, 김숙자의 아들이 영남사림파의 종장(宗匠)이라 일컬어지는 김종직(金宗直: 1431~92)이니 김종직은 류홍에게 처조카인 셈이 된다.

류홍과 선산김씨 사이의 아들이 류소(柳沼)인데, 하회에 살던 권옹(權雍, 본관 안동)의 딸과 혼인했다. 권옹은 류종혜와 더불어 풍산에 낙향한 배상공(裵尙恭, 본관 흥해)의 손녀사위이기도 하므로 세교(世交)가 있는 터에 혼인을 매개로 한 인연이 더해진 셈이다. 류홍의 아들이고 류중영에게는 조부가 되는 류자온(柳子溫, 1453~1502)은 김계행(金係行: 1431~1517, 본관 안동)의 딸과 혼인하였다. 안동 지역에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가졌던 김계행은 대사간을 역임한 적이 있는 청백리(淸白吏)로서, 김종직과는 동갑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회 마을 풍산류씨 혼맥도>

류자온의 아들 공작(公綽: 1481~1559)은 군위 지역에 강한 재지 기반을 가졌던 이형례(李亨禮, 1448~1507, 본관 연안)의 딸과 혼인하여 그곳을 중요한 삶의 기반으로 삼았다. 공작은 중영이 네 살 때 상처하였으나 재취(再娶)를 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류중영은 외가인 군위의 솔티에서 태어났지만,[8] 모정(母情)을 누리지 못한 채 외가와 진외가의 울타리 속에서 성장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 그를 둘러싸고 있던 어른들은 주로 진외가인 안동김씨가, 그리고 상주 함창 쪽에 살고 있던 아버지의 이종 형제들이었다.

이처럼 풍산류씨 집안은 풍산에 자리 잡은 이후 혼인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갔다. 그중에서도 류자온이 풍부한 사환 경력이 있는 김계행의 사위가 된 것은 여러 면에서 극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의 혼인이 주로 안동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던 데 비하여, 김계행과 연결된 것은 중앙의 정치무대에 진출하는 데까지 도움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계행은 90에 가까운 장수를 누리면서 외손을 포함한 자손들에게 엄청난 문화적 자본을 물려줄 수 있었다. 풍산류씨 집안에서 볼 때 김계행과의 만남은 영남 사림파의 지도자인 김종직을 배출한 선산김씨가와의 인연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었다.[9] 김계행의 다른 사위인 박눌(朴訥, 본관 함양)은 다섯 아들이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명성을 떨친 경우인데, 그것도 풍산류씨 집안의 류중영에게는 좋은 배경이 되었다. 류중영은 이들로부터 관료 사회에 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었고, 도움을 얻을 수도 있었다.

류중영이 성장하던 시기, 성장을 같이했던 비슷한 연배로는 외종인 이우민(李友閔), 종제인 류경심(柳景深)이 있었다. 류중영은 고위 관료로 출세한 이들과 평생의 동반자로 살았다. 14세에 채무일(蔡無逸)·김범(金範) 등과 함께 박눌의 넷째 아들인 박홍린(朴洪鱗)에게 글을 배웠다고 하는데,[10] 그중

8) 솔티는 군위군 군위읍 외량리(外良谷: 바깥어리실)의 솔티를 가리킴.
9) 류자온은 김종직의 문인 신종호(申從濩)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진사로 입격하기도 했다.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154쪽.
10) 박홍린은 홍문관 교리로 재직하다가 부친상을 당하여 거상 중이었음. 『중종실록』

김범이 세 살 위로서 비슷한 또래에 해당한다.

2. 『소학』과 풍산류씨 집안의 지향

영남사림파의 화려한 등장과 기묘사림의 개혁에 관한 열정은 안동에 자리 잡은 풍산류씨 집안에도 인상적인 흔적을 남겼다. 류자온은 그의 아들들에게 공작 · 공권(公權: ?~1539)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는데,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영남사림이 중앙 정계에 화려하게 등장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한 세대 후 공작은 아들에게 '중영'이라는 역시 '특별한' 이름을 붙였으니,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신진 사림의 개혁 운동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였다. 조광조 등은 일찍이 김종직-김굉필(金宏弼) 등이 강조하던 『소학』을 현실 개혁의 지침으로 간주하고 훈척(勳戚) 세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11]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은 『여씨향약(呂氏鄕約)』·『소학집주(小學集註)』 등을 보급하면서 향촌사회의 개조운동에 나서고 있었고, 이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었다.[12] 안동은 그러한 급격한 개혁의 열풍 한가운데 있었다.

풍산류씨 집안에 나타난 특별한 이름 붙이기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류공작이나 류중영이라는 이름은 『소학』의 「선행편(善行編)」에 등장하는 당나라 때의 인물 류공작-류중영 부자의 이름과 똑같다. 『소학』에 등장하는 류공작(柳公綽: 768~832)은 이름난 관리이며 서예가이고 장서가(藏書家)이기도 하다. 그는 단주자사(單州刺史)를 지낸 류자온(柳子溫)의 아들이며, 서예로 이름을 떨친 류공권(柳公權: 778~865)은 그의 아우이다. 또한, 류공작의 아들은 경조윤(京兆尹)과 하동절도사(河東節度使)를 역임한 류중영(柳仲郢: ?~868)이다. 이들은 훗날 『목민심서(牧民心書)』에도 여러 차례 인용될 정도로 본받을 만한 관료요, 목민관이기도 했다.

권23, 4월 정사(16). 「행년기」에는 13살 때의 일로 기록하였으나 잘못이다.

11) 이태진,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 『한국문화』4, 1983.

12) 윤인숙, 「조선전기 향약의 구현을 통한 '사문화'의 확산」, 『동방학지』81, 2013.

한편, 『소학』에서 류공작이 주목받은 것은 그의 가법(家法)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조회에 참석하지 않는 날이면 이른 새벽에 서재에 나아가 중영을 비롯한 자식들의 인사를 받았으며, 저녁이 되도록 서재를 떠나지 않았다. 서재에서 글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게 되면 자식들이 다시 와서 밤 문안을 드렸는데, 이를 이십여 년 동안 빠짐없이 행하였다고 한다. 공작이 죽자 중영도 한결같이 그 법도를 지켰으며, 숙부인 공권을 아버지처럼 섬겼다.[13] 공작이 변방의 절도사로 있을 때 그의 아들이 영내에 출입해도 군읍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아들에게는 막하의 보좌관들을 '어르신'이라 부르고 절하게 시켰다고 한다.[14]

이러한 가르침은 류중영으로 이어졌는데, 세 번이나 절도사를 지내면서도 좋은 말[馬]이 없었고, 옷에서 향내를 풍기지도 않았으며 손에서 책을 놓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대대로 전해지는 가법이 있었는데, 『소학』에 전하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직에 있을 때는 임금에게 상서로운 일이 있었다고 아뢰지 않으며, 승려와 도사에게 도첩을 발부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은 관리는 용서하지 않는다. 변방에 나가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고아를 돕는 일을 시급히 여겨야 한다. 물난리나 가뭄 같은 재해가 있으면 반드시 미리 앞서 곡식을 빌려주되, 군대의 식량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주고, 체납된 곡식은 반드시 면해준다. 관사와 역사는 반드시 증축하고 꾸며, 화려하고 성대하게 손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군사들을 위로한다. 신임 절도사와 임무를 교대할 때는 식량 창고와 비단과 돈을 보관하는 곳간이 처음 부임할 때보다 반드시 더 넘쳐나도록 한다. 영내에 부모가 없는 가난한 양반의 딸 중에 시집갈 나이가 된 아가씨가 있으면 모두 신랑감을 택한 다음 자신의 봉급에서 혼수비용을 마련해 시집보내준다.[15]

13) 『소학』, 선행편, 51.
14) 『소학』, 선행편, 62.
15) 『소학』, 선행편, 63.

16세기 초의 『소학』 보급운동을 거치면서 이러한 류공작 집안의 가법은 조선 국가에도 비교적 잘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대(唐代) 명신들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풍산류씨 집안이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명확하다. 혹시 처음에 류자온이라는 이름은 우연한 일치일 수 있지만, 류공작 이하 류중영에 이르기까지의 3대에 걸친 이름 짓는 방식은 뚜렷한 목적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는 자손이 그러한 명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수준이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그들이 『소학』의 실천윤리를 가법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열망을 품고 있었던 것을 반영한다.

풍산류씨 집안이 새로운 실천윤리를 받아들이는데 열성적이었던 것은 다음의 전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류공작의 처인 연안이씨와 관련하여 군위 지역에 전하는 다음의 전설은 대략 네 단계로 구성된다.[16]

ㄱ. 솔티 마을 풍산류씨 집에는 조금 떨어진 농바우의 연안이씨 마을에서 풍산류씨 집안으로 시집온 며느리가 있었다. 어느날 빨래하다가 지나가던 나그네가 건너편 산을 보고 명산이라고 찬탄하는 말을 들었다.

ㄴ. 이씨는 나그네로부터 그곳에 묏자리로 쓸만한 명당이 있는지를 간곡히 물었다. 나그네는 오지산 어느 곳에 무덤을 쓰면 자손이 크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ㄷ. 얼마 후, 이씨의 친정 조부가 별세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나그네가 알려 준 곳이 무덤 자리로 정해졌다. 이씨는 밤새워 무덤 자리에 물을 길어다 채웠다. 이씨 집안에서는 물이 나는 것을 보고 옆쪽 산자락으로 무덤 자리를 옮겼다.

ㄹ. 얼마 후 이씨의 시조부가 별세하자 전에 친정에서 쓰려고 했던 곳을 무덤으로 정하도록 청하여 뜻을 이루었다. 이후 솔티에 무덤을 쓴 풍산류씨 집안에서는 정승이 나고 가문이 번성하게 되었다.

16) 군위 지역에서는 잘 알려진 이 전설에 관한 뚜렷한 옛 문헌적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풍수에 관심있는 이들에게는 두루 알려진 사실이고 인터넷에도 관련 기사가 여럿 보인다. 김환대 편, 『내 고향의 전설, 경북 군편』(한국학술정보, 2016)에는 「딸년 도둑년의 오지산 전설」로 수록되었다.

전설에 등장하는 연안이씨 부인은 류중영의 어머니로 상정되고 있다. 갑산 교수를 지낸 하급 관료의 딸로서 풍산류씨 집안의 류공작에게 출가하였고, 실제로 솔티에는 류공작 내외의 산소가 있다. 결국 이 전설은 처향에 자리잡은 류공작의 산소에 관한 이야기가 과장과 윤색의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것인 동시에,[17] 류씨 집안에서 종법적 질서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하는 종법적 질서는 『소학』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실천윤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림파가 주도한 개혁의 열풍은 훈척 세력의 역습으로 일순간에 가라앉았다. 기묘사화로 조광조 등은 죽임을 당하였고, 『소학』은 20년 가까이 거의 불온서적처럼 여겨졌다. 신분계급주의 · 가부장주의 ·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소학』의 논리에 관하여는[18] 사화를 일으킨 훈척 대신들조차 반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학』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였으나,[19] 외방에서는 무조건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20] 그것이 이름만 보아도 '소학주의자'처럼 보이는 류중영이 보낸 청년 시절까지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광조의 이상을 지지했던 이들은 향촌 사회를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고 있었다.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워 관학과 구분되는 재지사족의 강학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축출되었던 사림 세력은 인종의 즉위를 계기로 하여 다시 기운을 펴기 시작했고 조광조의 관작(官爵)이 복구되었다. 인종이 승하한 후, 명종이 즉위하자 경연관으로 들어간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은 어린 임금에게 『소학』을 강의하겠다고 요청하여 수렴청정 중이던 대비의 허락을 받았다.[21] 이로써 훈척 세력의 의구심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17) 류공작의 처 연안이씨는 35세로 사망하였으므로(『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권46, 墓碣誌銘, 「淑人李氏墓碣銘 幷序」),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곳에 먼저 묻힌 것은 이씨의 시조부가 아니라 전설속의 주인공인 연안이씨이다.
18) 김준석, 「조선전기의 사회사상」, 『동방학지』29, 1981, 192쪽.
19) 『중종실록』 권41, 16년 1월 을축(12).
20) 박연호, 「조선중기 동몽교육과정의 변화」, 『교육사학연구』2·3, 1990.
21) 『명종실록』 권1, 즉위년 7월 신사(21).

『소학』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된 셈이었다. 류중영이 출사하게 되는 것은 이처럼 훈척 세력에게 압도당했던 사림이 점차 발언권을 강화하는 시기였다.

역사상의 큰 인물을 이름을 대대로 물려받았던 당사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였을 것인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대상을 가지는 것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었겠지만, 큰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자식을 큰 인물로 키워야 한다는 적지 않은 심리적인 부담이 되기도 했다. 먼저, 「행년기」에서 류운룡은 류중영의 교육관을 이렇게 표현했다.

> 자제를 가르치되 의로써 하고 매양 학업을 열심히 하라고 독려했다. 집안에서도 정숙하기가 엄숙한 스승과 같았다. … 이런 까닭으로 (퇴계) 선생에게 장자의 기풍이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는 반드시 보내어 배우게 하고 돌아오면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는 듣기에 싫증 내지 않으셨다. 얻은 것이 있으면 기뻐하셨고, 말하는 것이 흐리멍덩하면 화를 내면서 절박하게 책망하셨다.

또한, 이원익(李源益)의 『동사약(東史約)』에는 류성룡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류중영의 아들 교육과 관련한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전한다.

> 성룡의 자는 이현(而見)이요, 호는 서애(西厓)다. 어머니가 잉태하였을 때 꿈에 공중으로부터 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마땅히 귀한 자식을 낳으리라.' 하였다. 아버지는 중영이다. 아들에게 글 읽기를 시험하였는데, 일찍이 돌벼루를 던져서 이마에 상처가 있었다. 어려서 이황을 좇아 배웠다.[22]

이처럼 류중영은 아들의 공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화를 내고, 심지어는 돌벼루를 던졌을 만큼 극성스러운 인물이었다.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졌던 셈이다. 그리고 그런 압박감은 『소학』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따르던 가운데 형성된 기대감의 다른 측면이기도 했다.

22) 『동사약(東史約)』 상, 본조기, 정미 35년.

결국, 풍산류씨 집안에서 한때 유행했던 독특한 이름짓기 방식을 통해 다음의 몇몇 측면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는 그들이 『소학』의 실천윤리에 깊이 공감하여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요, 둘째는 『소학』이 불온하게 여겨지던 시기를 견디면서 꿈을 키웠던 것이요, 셋째 그런 가운데 강박감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풍산류씨 집안은 당대의 류공작·류중영에 못지 않은 가법을 세우는 데 실질적으로 성공하였던 것이다. 뒷날 문중에서 류중영과 그의 두 아들인 운룡·성룡, 그리고 류중영의 종제인 경심을 모두 불천위로 모시게 되었던 것은 그 증거이다.

Ⅲ. 관료 경력

1. 무록관 시절

: 성균관 권지-황주 훈도(종9)-상주·양주·안동 교수(종6)-경상도 가도사

류중영은 중종 35년(1540), 26세의 젊은 나이에 소과를 거치지 않고 곧장 문과에 급제하였다.[23] 급제자는 실직에 임명되기 전에 승문원·성균관·교서관에 분관(分館) 되어 관료로서 훈련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데, 류중영은 성균관 권지(權知)가 되었다. 당시의 통념으로는 승문원에 분관 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출세의 지름길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며,[24] 교서관을 가장 힘들게 여겼다. 분관의 기준은 주로 개인적인 능력과 덕성, 가문적 배경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분관 과정에서 류중영은 보통의 평가를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훈도(訓導)나 교수(敎授)의 직은 외방의 군현에 둔 것으로서 '흥학(興學)'을 위하여 설치한 관직이다. 이들 관직은 무록관(無祿官)으로서 문관으로 파직

23) 이때 류중영은 식년시에서 병과 23위로 급제했다.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24) 『명재유고(明齋遺稿)』 권36, 묘지명, 「左副承旨沈公墓誌銘」.

된 이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지만,[25] 이력을 쌓아 동반의 6품직(녹관직)에 제수될 수 있었고, 생원·진사의 자격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연줄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계제로 활용되었다.[26] 류중영의 경우 관력을 쌓기 위하여 나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개의 훈도·교수들이 강학을 소홀히 하는 데 비하여 열성적으로 일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29세에 얻은 가도사(假都事)는 전조(銓曹)의 삼망(三望) 절차를 거친 도사가 아니고 관찰사가 개인적으로 인선한 임시직이다. 대개 도사의 자리가 비었을 때 정식으로 임용받은 도사가 내려오기까지 한시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류중영은 경상도 관찰사 이언적의 부름을 받았다.[27] 이는 이 시기 유중영이 이미 영남 사림의 명망 있는 지도자인 이언적의 부름을 받을 만큼 평가받고 있었음을 말한다. 물론, 그와 함께한 인연은 이후 영남의 사림 사회에서 류중영이 인맥을 확대시키는 계기로도 활용되었을 것이다.

결국 류중영은 과거에 오른 후 3년여 동안 무록관으로서 경력 쌓기를 했던 셈이다. 당시 급제 후에 실직에 임명될 때까지 보통 3~4년의 기간이 걸린다 하였으므로[28] 류중영도 평균적인 수습 기간을 거친 셈이다.

2. 성균관의 하급 관료 시절

: 성균관 학유(종9)-박사(정7)-전적(정6)

경상도 가도사(假都事)로 잠시 재직한 류중영은 32세 때 성균관으로 돌아가기까지 1년 이상의 공백기를 가졌다. 중간에 중종 승하 때 설치된 도감(都監)에서 잠시 집사(執事)를 맡았지만, 그것은 임시로 설치된 기구에 잠시 차출된 경우에 지나지 않았다.[29] 그러나 보통 국장(國葬)이 끝나고 나면 도감

25) 『중종실록』 권27, 11년 12월 경신(14).
26) 『중종실록』 권22, 10년 윤4월 신사(24).
27) 따라서 『경상도선생안』에는 류중영이 도사로 재직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28) 『중종실록』 권67, 25년 1월 임자(21).
29) 이때 빈전도감(殯殿都監)과 국장도감(國葬都監)·산릉도감(山陵都監)이 설치되었

에서 근무한 이들에게 작상(爵賞)이 따랐다. 류중영은 중간에 사직하였기에 어떤 상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승진 과정에서 꼼꼼하게 이력을 따지던 관행과 법규 속에서 그때의 경력은 이후의 관계 진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30]

류중영이 실직 녹관에 임용된 것은 급제한 뒤 6년여 만인 명종 원년(1546)의 일이다. 그간의 경력으로 품계는 올랐겠지만, 그가 성균관에서 처음으로 맡았던 관직은 종9품의 말직인 학유(學諭)였다. 이때 그는 성균관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장무관(掌務官)을 맡았고 과거 업무를 지원하는 관청인 양현고(養賢庫)의 직장(直長)을 겸하기도 했다. 그는 학유로 재직할 때부터 일처리에 유능하여 성균관 유생들의 신망을 얻었다고 한다. 이때 성균관 소속의 학전(學田)을 부상(富商)이 사사로이 점유하였던 것은 밝혔고, 부상(富商)의 청탁을 받은 호조판서와 맞섰다. 호조판서가 '사체매몰(事體埋沒)'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죄(私罪)로 얽어 왕에게 보고하는 바람에[31] 류중영은 임명받은 직첩에서 3등급 강등되는 '탈고신삼등(奪告身三等)'의 불이익을 받았다.[32] 그러나 학전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행년기」에서 전하는 것처럼, 류중영의 명성과 성균관에서의 신망은 더욱 높아졌다.

이듬해 류중영은 성균관의 박사(博士)로, 2년 후에는 전적(典籍)으로 승진했다. 그 과정에 당대의 권신 윤원형(尹元衡)과 충돌하는 일이 있었다. 「행년기」에는 정미년 9월에 '공사(公事)로 이조판서 윤원형에게 나아가 항론(抗論)하여 굽히지 않았기에 파직되었다.'라고만 전하지만, 실록에 전하는 다음의 기록은 이때의 일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 『중종실록』 권105, 39년 11월 경술(15); 『인종실록』 권1, 1년 윤1월 신사(18).

30) 무록관과 대개의 당하관은 근무 날짜를 따져 승진과 교체를 허락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31) 『선조실록』 권88, 30년 5월 임자(22).

32) '탈고신삼등'은 사죄(私罪)로 장(杖) 80에 해당하는 벌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추단(推斷).

특진관 윤원형이 아뢰었다.

"성균관은 인재를 기르는 곳입니다. 인종 때에 다시 기묘년의 풍습을 숭상하였는데 『소학』의 가르침이 진정한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만, 요사이 다투어가며 서로 붕당(朋黨)이 되어 『소학』의 도를 한다고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먼저 남을 공격하는 것을 일삼아 드디어 경박한 풍습을 이루었으니, 이는 기묘년 때의 사람들이 그르친 것입니다."[33]

이는 인종 때에 활기를 띤 사림파의 정치적 발언에 관한 훈척 세력의 반응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즉, 성균관의 유생들이 붕당을 지어 명분을 내세운다면서 남을 공격하는 일이 풍습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소학』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김종직(金宗直)의 영향이 강한 향촌 사회에서 성장한 류중영은 윤원형의 이러한 시각에 맞섰다가 파직된 것으로 보인다. 일찍부터 능력을 인정받았던 류중영이 윤원형의 집권기 내내 거의 외직으로 맴돌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파직된 후 3개월여 후에 류중영은 다시 성균 박사로 복귀했다. 이때 류중영은 사관(四館)의 관리들이 성균관 유생들과 결탁하여 저지르는 녹명(錄名) 부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당시 문과를 보이기 위해 응시 자격을 심사하여 원서를 접수하는 절차인 '녹명'에서 사적인 친소(親疎)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일이 관행적으로 자행되었다.[34] 류중영은 예문관(藝文館) 대교(待敎)인 이승효(李承孝)가 주도하는 이 일에 관하여 '식년(式年)의 녹명은 성균관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내세우고 이승효의 하관 속리(下官屬吏)를 잡아다가 매질하여 모욕을 주어 이승효의 사과를 받아냈다.

이처럼 기존의 관행에 맞서면서 류중영은 명성을 얻어 곧 예문관으로 자리를 영전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다.[35] 그러나 류중영은 예문관의 전현직 관료들과의 접촉을 일부러 피할 정도로 처신했다고 한다. 결국, 예문관으로

33) 『명종실록』 권6, 2년 9월 신해(3일)

34) 『택당집 별집(澤堂集別集)』 권10, 행장 하, 「任疎庵言行錄」.

35) 예문관은 한원(翰苑)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의 관리는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거나 사관(史官)으로 입시하기 때문에 최고의 청요직(淸要職)으로 여겨졌다.

옮겨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듬해 성균 전적으로 내부 승진을 했다.

3. 전곡 · 사송 아문 경력

: 사헌부 감찰(정6)-공조좌랑(정6)

35세 때인 명종 4년(1549), 류중영은 사헌부 감찰(監察)에 제수되었다. 이어 10월에는 공조좌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기간은 반년에 지나지 않지만, 관료 이력에서 매우 중시되는 절차였다. 사헌부 감찰은 한성부(漢城府) 주부(主簿), 장례원의 사평(司評)이나 형조 낭관와 함께 업무의 대부분이 사송(詞訟)이고, 공조의 낭관직은 호조의 낭관과 함께 전곡(錢穀)을 관리하는 실무 관직으로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정이었다. 즉, 사송과 전곡 관리 능력은 고을 단위에서 재판을 주관하고 부세 징수와 진휼을 주관해야 하는 수령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런 사송 · 전곡 아문은 국초부터 수령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사전에 거쳐야 하는 경력이었기 때문에 근무 개월 수를 일일이 계산하여 승진이나 전보시킬 정도로 엄격했고, 뒷날 『속대전(續大典)』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 음관은 6품으로 오른 후에 사송직으로 옮기고[호(戶) · 공조(工曹) · 금부(禁府) · 오부(五部)도 마찬가지이다], 1고(考)를 거친 후에 비로소 수령직에 의망(擬望), 즉 후보로 올린다.[36]

여기에 열거된 관직은 사송 · 전곡 아문의 대표적인 것이다. 물론 이는 음관이 수령직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것이지만, 문신이었던 류중영도 이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37] 류중영은 이미 성균관의 하급 관료로서 실무

36) 이들 관직은 모두 6삭 전에 옮기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임직이었다('刑 · 戶曹 · 京兆 · 禁府 · 監察 · 掌隷院 郎官 六朔前 毋得遷轉': 『속대전(續大典)』 1, 이전, 고과).
37) 물론 최고의 엘리트 군은 사송 · 전곡 아문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경험을 쌓았지만, 이런 관직을 통해 본격적인 사송·전곡 아문 경력까지 거쳤다. 이제 치민(治民)의 현장인 수령직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4. 유신현감과 관력 공백기

: 유신현감(종6)-가병조좌랑-형조정랑

명종 5년(1550) 1월에 류중영은 유신현감(維新縣監)에 제수되었다. 유신현은 본래 충주목(忠州牧)이었는데, 전년에 있었던 이홍윤(李洪胤) 옥사 사건 때문에 현으로 강등되고 지역의 사림이 크게 화를 입은 상황이었다. 비록 현으로 강등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을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능력과 경력이 있는 자가 수령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30대 중반의 젊은 관료인 류중영이 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인사가 가능했던 것은 그가 능력을 크게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첫 수령 경력은 불과 8개월 만에 끝났다. 잘 다스린다는 평가가 있었지만,[38] 옥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전 충청도 관찰사 이해(李瀣)가 죄인들을 두둔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해는 이황의 형이요, 대사간·대사헌 등의 고위 관직을 두루 역임한 고위 관료로서 사림세력을 후원하던 인물이었는데, 죄인들에게서 공식적으로 몰수[籍沒]한 재물 일부를 본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류중영은 유신현에 남아있는 관련 문서를 즉각 올려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머뭇거린 것이 문제가 되어 파직되었다.[39]

이후 류중영은 1년 넘게 관직을 얻지 못하다가 명종 6년 10월에 가(假)병조좌랑이 되어 업적을 쌓을 기회가 있었다. 역시 정식으로 임명받은 직책이 아니고 임시직이었다. 그러나 '군안(軍案)을 개정(改正)하고 자세히 검토하니 아전들이 감히 숨기지 못하였고, 병조의 늙은 아전들이 서로 말하기를 일찍

류중영의 아들인 류성룡은 외직에 나가기 전에 그런 종류의 관력을 가진 적이 없다.

38) 『명종실록』 권15, 8년 9월 기사(26).

39) 『명종실록』 권10, 5년 8월 무진(7).

이 없던 인물'이며, '곧 정식으로 임명될 것[眞拜]'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얼마 후 낭관에 결원이 생겨 첫 번째로 추천되었으나 마침 전조(銓曹)의 낭관이 외종인 이우민이었기 때문에 피혐(避嫌)하여 제수받지 못하였다. 그대신 형조정랑을 잠시 역임한 것으로 보인다.[40]

5. 중견 문관으로서의 관력과 언관 활동

: 평안도 감군어사-공조정랑(정5)-종부시 첨정(종4)-장악원 첨정(종4)-군기시 부정(종3)-전라도 경차관-사헌부 장령(정4)-사복시 정(정3하)-장령-사간(종3)-장악원 정(정3하)-경상도 순찰사 종사관

류중영이 다시 관직을 얻게 된 것은 명종 7년(1552) 4월에 평안도 감군어사(監軍御史)에 제수되면서부터였다. 감군어사는 전례가 없지는 않은 듯하나 명종 5년경부터 변방 수졸(水卒)들의 폐단을 교정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다.[41] 그러나 감사의 직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병·수사와 수령의 위법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42] 영호남에 먼저 파견하고, 명종 6년에는 무인들이 무인들이 수령·변장을 감당하는 양계(兩界) 지역에도 감군어사를 파견할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43] 결국 받아들여졌다.[44]

류중영은 평안도 감군어사로 나아가 폐단을 뜯어고치고 탐관을 파출(罷黜)했다고 한다.[45] 그러나 감군어사를 접대하는 과정에 변진(邊鎭)이 부담해야

40) 『서애집(西厓集)』 권20, 묘지, 「先考黃海道觀察使府君墓誌」. 이 자료는 『입암일고』 권2에도 실렸다.
41) 당시 수졸들이 겪었던 고통 중 둔전을 둘러싼 부정을 전하는 기록은 『명종실록』 권12, 6년 8월 기미(4).
42) 『명종실록』 권10, 5년 8월 경인(29).
43) 『명종실록』 권11, 6년 2월 임오(24).
44) 『명종실록』 권11, 6년 2월 을유(27).
45) 류중영의 경우 실록에 구체적으로 탐관을 파출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경상도의 좌우 수사가 모두 군졸을 침탈한 것 때문에 파출 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록에는 평산의 부민들이 평산부사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고 류중영이 보고한 기록이 있다. 『명종실록』 권13, 7년 10월 병인(17).

하는 부담이 적지 않았고, 군사들이 장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되면서 4년만에 폐지되었다.[46] 「행년기」에도 '같은 진(鎭)에 오래 머물면 관곡지대(館穀支待)의 폐단이 있다' 하여 악천후에도 행군을 강행한 기록이 있다. 이때 류중영은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6년째 강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이언적을 찾아 위로하였다. 기피 인물이던 이언적을 찾았던 그의 용기있는 행동은 당연히 「행년기」에 전해졌다.

감군어사를 마치고 귀경한 류중영은 이후 공조정랑을 거쳐 종부시 첨정(僉正)으로 승진하고, 이어 장악원 첨정, 군기시 부정(副正: 종3)으로 승진했다.[47] 그리고 명종 8년 봄에는 전라도 경차관(敬差官)으로 군적을 점검하였다. 이때 향교 유생들을 고강(考講)하여 자격 미달자를 가려 군정으로 편입시켰는데 목소리만 듣고서도 대리 고강자를 적발하여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한편, 수령들이 한정 수괄(閒丁收括)을 과도하게 하여 역을 부담하지 못해 흩어지는 자들도 많았다. 류중영은 이들의 집안 사정을 고려하여 2천여 명이나 군역에서 면해 주는 탈역(頉役) 조치를 통해 민심을 안정시켰다.

류중영은 그해 가을에 사헌부 장령(掌令)으로 자리를 옮겼다. 언관으로서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초의 관직이었으며, 국왕의 측근인 시종관(侍從官)으로 경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도 서얼 허통(庶孼許通) 문제를 둘러싸고 대사헌 윤춘년(尹春年)과 충돌했다. 윤춘년은 당시 권력자였던 윤원형의 지원 속에 서얼들이 대소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의 청현직(淸顯職)을 제외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윤원형이 자신의 천첩 소생들에게 출세의 길을 터주기 위한 사사로운 뜻이라는 비판이 많았으나,[48] 윤원형의 위세를 겁내어 나서는 이가 많지 않았다. 이때 류중영이 윤춘년과 격론을 벌이면서까지 반대하였다고 한다.

---

46) 『명종실록』 권14, 8년 6월 신축(26); 『명종실록』 권19, 10년 7월 갑오(2).
47) 노수신, 「(류중영)신도비명서」. 「행년기」에는 '공조좌랑'이라고 하였으나 형조정랑을 거친 뒤였기에 '공조정랑'이 옳을 것으로 본다.
48) 『명종실록』, 권15, 8년 10월 경진(7) · 임오(9).

이러한 류중영의 태도는 명분에 관한 완고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불에 탄 경복궁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면서 회릉(懷陵)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그의 지적도 마찬가지다. 회릉은 성종의 폐비 윤씨의 무덤이었는데, 류중영은 하필이면 한때 국모였던 이의 무덤가에서 채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을 내어 좋은 평판을 얻었다.

잠시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나갔던 류중영은 얼마 후 대간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평가에 힘입어 장령으로 복귀하였다. 이때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고령현감에 있던 이희안(李希顔)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간 일 때문에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경상도 관찰사는 처벌을 요청했으나 류중영은 조정에서 예의와 염치로 사대부를 대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이희안의 파직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그의 태도는 사림의 인심을 얻는 것이었다.

그는 휴가를 얻어 간성군수로 재직하던 부친을 근친하는 과정에도 간관으로서의 직분을 잊지 않았다. 중간에 거치는 여러 고을의 민폐를 경연에서 왕에게 보고하여 교정하고자 했다. 얼마 후 사간(司諫)으로 승진하였고, 잠시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재직하며 음악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힘썼다. 명종 10년(1555) 5월에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경상도 순찰사 조광원(曺光遠)의 종사관으로 수행하여 수개월 동안 동분서주했다. 류중영은 조광원을 보좌하여 왜구의 침입에 따른 소란스러운 일선 현장을 수습하는데 능력을 발휘하여 당대의 명사인 조식(曹植)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준전시 상황에서 온갖 잡역에 군정으로 동원된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효용군·잡색군 등을 일시 해산시키고 대신 승군(僧軍)을 동원하여 대신하도록 하는 조치도 주도적으로 행하였다.[49]

6. 변지 사정을 익힌 의주목사 시절

: 의주목사–(호군, 첨지중추부사, 의흥위 사정)

49) 『묵재일기(默齋日記)』 을묘 5월 26일.

명종 10년 11월, 류중영은 의주목사(정3품)에 제수되었다. 의주는 대명 외교의 관문이요, 여진족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서 치안·국방 문제가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외관직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관직이었다. 게다가 그 무렵 중국인들이 강을 건너와 불법적인 거래를 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터였다.[50] 잠깐 유신현감을 지낸 이력 외에 별다른 목민 경험을 갖지 못한 그였지만 간관으로 보여준 정치 감각, 평안도 감군어사와 경상도 순찰사 종사관으로서 검증된 업무 능력 덕택에 의주목사에 임명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주에서 류중영은 만성적인 밀무역 문제와 불안한 치안 문제에 잘 대처했다. 밀무역을 막기 위해 척신 세력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주로 역관을 통하여 저지르는 부정을 엄격하게 단속했다.[51] 심지어는 당대의 실권자인 대비[문정왕후(文定王后)]의 사위가 된 한경록(韓景祿)이 혼인을 앞두고 역관을 통하여 밀반입한 물자까지 압수하여 속공(屬公)시키기까지 했다. 비록 대비의 전지(傳旨) 때문에 물자를 되돌려줄 수밖에 없었지만,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월경(越境) 문제를 단속하기 위하여 군령을 엄숙히 하고 강변을 따라 참호를 설치하고 감시하도록 하면서 봉화 시설을 마련하여 도적을 단속했다.

류중영은 명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논란을 미리 해결하는 능력도 보였다. 요동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명의 지방관이 관리를 보내 양식을 구하는 외교문서를 들고 서울까지 가겠다고 억지를 썼다. 류중영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거절하고 분노하는 관원을 달래어 무마시켜, 자칫 심각한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밖에 고을 주민의 신망을 얻기 위한 여러 조치를 했다. 향교를 수리하여 강학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문풍을 일으켰으니 사족을 비롯한 여론 주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수해나 한해가 있으면 통상의 예에 따라 기우

50) 『명종실록』 권19, 10년 윤11월 임오(21).

51) 이 시기 대명 밀무역에는 당대의 척신과 권신들이 개입하고 있었다. 구도영, 「16세기 조선 대명 사행무역(使行貿易)의 수출품 구성과 그 추이」, 『대동문화연구』 100, 2017.

제를 직접 주관하고, 뽕나무를 증식시켜 양잠을 장려하였다.[52] 이는 다수의 농민층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했다. 이러한 업적으로 류중영은 왕으로부터 표리(表裏)를 하사받는 영광을 누렸고, 30개월의 근무기한을 무사히 채울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류중영은 호군(護軍)·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제수되어 서반직이기는 하지만 당상관이 되었다.[53] 또한, 중간에 부친상을 당하여 명종 17년(1562)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은 뚜렷한 관직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변방 수령을 역임한 경력 때문에 변경 문제에 자문하는 일이 있었다. 예컨대 명종 13년에 병조판서 권철(權轍)을 중심으로 압록강변에 장성(長城)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일었다. 류중영은 수백리에 이르는 강변에 장성을 쌓는 일을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혹 한 도가 힘을 기울여 쌓는다 하여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병조의 주장대로 성을 쌓았으나 보잘것없는 토성을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명종 16년 여름, 탈상한 류중영은 낮은 서반직인 의흥위(義興衛)의 사정(司正, 정7품)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그는 1년 넘게 실직을 얻지 못하였다. 윤원형을 견제하면서 정치적으로 급성장한 이량(李樑)이 류중영을 시종직 후보자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듬해 8월에 중국에 말을 바치기 위해 파견하는 임시직인 관압사(管押使)로 차출되어 북경을 다녀왔다. 이듬해 2월에 귀경할 때까지 꼬박 반년이 걸리는 여행을 한 셈이다.

7. 황해도 관찰사로서의 도정

: 형조참의-(의흥위 부호군)-황해도관찰사

북경에서 돌아온 류중영은 잠시 형조참의(정3품)에 제수되었다. 동반 당상

52) 이때 오디를 따서 볏짚과 섞어 곳곳에 묻어 뽕나무를 증식시켰다고 함.
53)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된 일은 류성룡이 작성한 '묘지명'에 의함.

관직에 처음 오른 것이었지만 몇 달 가지 않아 다시 의흥위의 부호군(副護軍, 종4품)으로 옮겼고,[54] 이듬해 7월에는 재상급의 관직인 황해도 관찰사(종2품)가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가 50, 벼슬길에 오른 지 24년 만의 일이었다. 그가 관찰사직에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은 4년 가까이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류중영을 배제하려던 이량이 실각했기 때문이었다.

관찰사 류중영이 제일 먼저 직면한 것은 산적한 송사 사건이었다. 류중영이 부임한 첫날에 밀린 송사를 물 흐르듯 처결하니 모두가 감탄했다고 한다. 이어 '거실대가(巨室大家)'의 권력과 결탁한 토호들이 양민을 사적으로 지배하고 요역을 세력 없는 이들에게 떠넘기는 폐단을 없앴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토호의 문제였지만, 결국은 중앙의 특권층, 즉 훈척 세력이 농장을 확대하고 공민을 침탈하던 전형적인 훈척형 비리였다.[55] 이는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좀먹는 일이었으므로 저항하는 토호들을 잡아 가두는 등 용서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는 이른바 토착 사회의 기득권과 과감하게 부딪친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또 다른 토착세력인 향리들도 류중영의 통제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관찰사의 장계를 가지고 상경한 영리(營吏) 한 사람은 대궐 앞까지 와서 관찰사를 헐뜯었다. 후에 그가 교체된 후에 감영의 아전들이 모여 술을 돌리면서 '이제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다.

황해도 시절 류중영은 흥학을 위한 과감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찍이 주세붕이 관찰사로 왔을 때 최충(崔冲)을 배향하는 서원을 짓고 '문헌당(文憲堂)'이라고 이름 붙이고 제사와 강학을 하도록 했는데,[56] 십수 년을 지나는 동안에 재정이 바닥나서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였다. 류중영은 감영에 있는 속포(贖布)를 기반으로 2천 석의 곡식을 마련하고

54) 류성룡이 지은 묘지명에는 '호군'으로 기록되었다.
55) '임꺽정의 난'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고 있다. 한희숙, 「16세기 임꺽정 난의 성격」, 『한국사연구』89, 1995.
56) 『명종실록』 권18, 10년 2월 경인(25).

그 이식(利息)으로 선비들을 지원하게 하고 이를 작성고(作成庫)라고 이름 붙였다.[57]

한편, 왕조실록에는 류중영이 해주 신광사(神光寺)의 주지인 도정(道正)의 비리를 장계하였다는 기록이 실려있다. 당시 불교계는 대비인 문정왕후의 지원을 받는 보우(普雨)의 위세에 힘입어 활기를 띠고 있었는데, 류중영은 도정이 절을 방문한 유생들을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도정을 공격했다.[58] 유생들이 공부를 위하여, 또는 유흥을 위하여 절간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는데, 대개는 유생들이 승려들을 침탈하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다. 경위야 어떻든 유생들이 승려에게 구타당했다는 것은 유교 국가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도정이 서울로 잡혀가는 소동이 있고 난 뒤인 그해 겨울, 류중영의 종제인 중엄과 두 아들은 신광사에 머물면서 글을 읽었다.[59]

8. 전문 목민관으로 활약한 대읍 수령 시절

: 정주목사(정3)-청주목사(정3)

반년 가까이 첨지중추부사(정3품)로 군직에 머물던 류중영은 명종 21년(1566) 초에 정주목사에 제수되었다. 척신으로서 오랫동안 권력을 행사했던 윤원형이 실각한 이후였다. 정주는 중국을 오가는 사신들이 통과하는 요충지, 즉 연로읍(沿路邑)으로서 중요한 곳이었기에 이미 관찰사까지 거친 류중영이 임명된 것이다.

류중영은 정주에서 그의 능력을 잘 발휘했다. 융경제(隆慶帝, 명 목종) 즉위 후 조사(詔使)가 왔을 때 마침 명종이 승하하여 의전(儀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자 침착하게 의전을 차려 유감이 없도록

57) 류중영의 두 아들도 당숙인 류중엄(柳仲淹)과 함께 문헌서원에서 독서한 일이 있었음. 『겸암집(謙菴集)』 연보, 을축 봄.
58) 『명종실록』 권30, 19년 9월 기유(10).
59) 『겸암집』 연보, 갑자 겨울.

했다. 그해 가을에 중국에서 위문 사절이 왔을 때에도 임무를 잘 수행했다. 아울러 중국의 사절이 오갈 때마다 연로(沿路)에 농민들을 동원하여 대기하도록 하는 폐단을 교정했다. 미리 수요를 계산하여 교대로 동원하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편, 류중영은 흥학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향교를 수리하고, 서원을 세워 서도 지역에서 문풍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황이 편찬한 『회암서절요(晦庵書節要)』를 판각하였다.[60] 이 과정에서 이황과 소통하면서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런 일들은 서쪽 변방 사람들이 성리학서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의 의지의 소산이었다. 뒷날 정주가 문향(文鄕)으로 일컬어지고, 풍속에 '경전과 사서(史書)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61] 우연이 아니다.

선조 원년(1568) 8월, 30개월의 근무 기간을 채우고 상경한 류중영은 얼마 안 가 외직에 다시 제수되었다. 처음에 여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전임자의 해유(解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임하지 못하였고, 다시 청주목사에 제수되었다. 이때는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한 후였으므로 오랜 척신정치가 막을 내리는 상황이었다. 류중영을 중앙의 요직에 쓰일 만한 인물이라고 여겼던 이황은 류중영이 거듭 외직에 나가게 된 것을 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보내 주었다.

정주 백성들이 선정(善政)을 그리워하며 노래하는데	定民方詠去思吟
이제 다시 충청도의 수령으로 나간다네	又佩湖州印去今
대각(臺閣)에는 인원이 남아돌아 발붙일 곳 없으나,	臺閣剩員無寄足
산골에는 굶주린 백성들 많으니 더욱 마음 쓰시게	壑溝多瘠更關心
(하략)[62]	

60) 『회암서절요』는 이미 6년 전인 명종 16년에 이황의 문인인 황준량이 성주목사 시절에 판각한 일이 있었으며, 류중영이 판각한 정주본(定州本)은 두 번째 것이다.

61) 『여지도서(輿地圖書)』, 정주, 풍속. 여기에는 '喜經史 勤農桑'이라 하였다. 평안도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62)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권5, 속내집, 시, 「題柳彦遇河隈畫屛 幷序」.

청주에서 30개월 넘게 재직하는 동안 류중영은 목민관으로서 만개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청주는 고을의 규모가 크고 토호 세력이 강성한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難治邑]'이었다. 류중영은 토호 세력을 제압하고 농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정사를 펴고 흥학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펴는 한편, 명분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했다.

먼저 남의 노비를 끌어들여 은닉하는 토호들을 징치했다. 당시 도망 노비가 많았는데, 추쇄에 나섰던 상전이 도망 노비의 공격을 받아 죽도록 구타당하는 일이 있었다. 류중영은 도망 노비로서 양인 행세를 하면서 토호들의 그늘에 숨는 일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먼저 토호들과 결탁한 아전들을 처벌하고 버티는 토호들을 엄하게 다스렸다. 그리고 한달도 되기 전에 백여 명에 이르는 도망 노비를 색출하여 원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이 일로 원망하는 말이 서울까지 전해졌기에 자제들이 벼슬을 버리고 돌아올 것을 청할 정도로 위협적이었으나 류중영은 동요하지 않았다.

류중영은 농민들을 위한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보호하는데도 열심이었다. 수리시설을 보수하고 농사와 양잠을 권장했다. 마무리하지는 못하였으나 오공천(吳公川)의 물길을 끌어들여 관개하는 일을 추진했으며, 고을의 여기저기에 창고를 지어 내왕하는 관원들의 경비를 해결하였다. 환곡을 받아들일 때 숫자만 채우던 관행을 배격하고 알찬 곡식으로 바꾸었다. 수납과정에서 아전들이 조잡한 곡식을 바치고 좋은 곡식을 받아가는 관행을 고치기 위하여 아전들이 바치고 받아가는 곡식을 따로 관리하여 폐단을 뜯어고쳤다. 이런 일들은 한때의 비판을 무릅쓰면서 추진한 것으로서 훗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무엇보다 훗날까지 혜택을 남긴 것으로는 세곡을 납부하는 경로를 바꾼 것이었다. 종래 세곡을 아산까지 운반하여 바닷길로 상납하였는데 뱃길이 험하여 사고가 나는 일이 잦았다. 그때마다 농민들에게서 다시 곡식을 거두어야 했으니 그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류중영은 관찰사에게 청하여 충주로 세곡을 옮겨 남한강 물길을 이용하여 바치도록 관행을 바꾸었다. 충주

를 거쳐 상납하는 청주의 세곡 납부 방식은 훗날 금납화(金納化)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하였다.

흥학을 위한 조치도 있었다. 유생들의 힘을 모아 유정서원(有定書院)을 짓고 사화 때 희생된 김정(金淨)과 송인수(宋仁粹, 1499~1547)를 배향하고자 했다.[63]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였지만, 기묘사화 때 훈구세력에게 희생된 김정,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권신 윤원형에게 희생된 송인수를 배향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선조의 즉위로 상징되는 본격적인 사림 정권의 출범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황도 적극적인 찬사를 보냈다.

아울러 『시경』·『서경』과 『맹자대문(孟子大文)』·『봉선잡의(奉先雜儀)』·『동자습(童子習)』 등을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그중 『봉선잡의』는 이언적이 편찬한 것으로서 주자가례와 속례를 고려하여 제사의식을 정리한 책이었고, 『동자습』은 유교의 기초적인 덕목을 설명한 소아용 책자로서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그밖에도 『동국통감(東國通鑑)』을 3권으로 추려 인쇄하고 보급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서책 보급 사업은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강조하던 사람파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밖에도 향교의 제사에 전날부터 재계(齋戒)하고 직접 챙겼으며, 서낭당 등의 제향도 보살펴 향민의 신망을 얻었다. 칠팔십대의 노인들을 때때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병으로 불참한 이들에게도 술과 음식을 보내주니 칭송이 높았다. 이런 일들이 어사를 통해 알려져 표리(表裏)를 하사받았다.

한편, 이 시기에 류중영은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이황, 그리고 종제로서 그와 더불어 문중을 대표하던 류경심의 죽음을 곡하였다.[64] 특히 경심은 그와 한 살 아래로서 관계에 진출하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외의 요직을 수행하던 중이었다. 바야흐로 사림 정치가 자리잡힐 즈음에 닥쳐온 그들의 죽음은 류중영에게도 충격이었다.

---

63) 노수신의 「신도비명서」에서는 김정·송인수 외에 이색을 모시는 향현사를 세우고자 했다고 함.

64) 『입암일고』에는 류중영이 경심을 위하여 지은 행장이 전함. 류중영, 「故嘉善大夫大司憲柳公行狀」.

9. 경관으로 마무리한 마지막 관력

: 병조참지-동부승지-우부승지-좌부승지-예조참의-좌부승지

선조 5년(1572) 봄, 류중영은 병조참지(兵曹參知, 정3품 당상관)에 제수되어 향리를 뒤로하고 상경했다. 청주목사 임기를 마치고 낙향하여 보낸 반년 동안은 그가 풍산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이었다.

병조의 가장 큰 문제는 상번(上番) 군사들의 군기가 문란한 것이었다. 군사들이 담당 아전에게 뇌물을 주고 역을 피하는 경우가 일상화되어 시위(侍衛)가 느슨할 정도였다. 또한, 군사들의 병기를 검열하는 아전들이 갖은 탈을 잡아서 속포(贖布)를 거두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그 일을 다잡았다. 이로써 아전들이 도망하는 예까지 있었으나 류중영이 일을 맡은 후 군사들이 무기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류중영은 반년 동안 동부승지 · 우부승지 · 좌부승지를 차례로 제수받았다. 승지가 된 후 가장 큰 변화는 경연에 자주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국왕을 성군(聖君)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경연은 철학과 역사를 강의하면서 현실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따라서 류중영은 그간 갈고 닦은 경륜을 국왕에게 직접 피력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즉위 초년에 의욕이 넘치던 젊은 국왕 선조와의 만남은 그에게 정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가 마련된 것처럼 보였다. 류중영은 대마도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에 관하여 경륜가다운 조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듬해 2월에 잠시 예조참의에 제수되었던 류중영은 3월에 좌부승지로 돌아가 다시 승지로서 재직하다가 병을 얻어 7월에 별세했다. 그때 그의 나이 쉰아홉, 큰아들 운룡은 류중영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음직으로 얻은 전함사(典艦司) 별좌(別坐)로 재직하고 있었고, 문과에 급제한 뒤 엘리트 코스를 달려온 둘째 성룡은 최고의 청요직인 전랑(銓郞)으로서 조정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Ⅳ. 맺음말: 관료 생활에 나타난 특징

류중영의 관료 생활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그의 생활 공간이다. 영남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그가 관료 생활을 하는 동안 향리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드물었다. 26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별세할 때까지 「행년기」에 명시된 귀향은 불과 몇 차례 되지 않는다. 「행년기」에는 명종 14년에 전직 의주목사로서 부친상을 당하여 2년간 머물렀고, 청주목사 재직 시절인 선조 2년 3월에 귀향하였다가 10월에 상경하여 임지로 돌아갔다고 하니 반년 가까이 향리에 머물렀고, 선조 4년에 청주목사 임기를 마치고 반년 정도 향리에 머물렀던 세 차례의 예가 있을 뿐이다. 그밖에도 명종 10년에 경상도 순찰사 종사관으로 영남을 순행할 때 안동에 들렀으니 분명히 고향에 들렀을 것이고,[65] 그밖에도 관료들에게 허용되었던 휴가를 얻어 귀향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 류중영은 관료로서 봉직하던 기간 대부분을 서울이나 지방의 임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벼슬살이하면서 거처하는 서울집도 유지했고, 관직을 갖지 못하던 시기에도 서울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류중영은 고향을 무척 그리워했다. 하회의 경관을 그린 병풍을 곁에 두고 있었다 함은 그의 귀소성(歸巢性)을 보여주는 예이다. 향리와의 굳은 연대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우선, 안동권에서 오랫동안 성장해 온 경제적 기반이 여전했고, 오히려 증가하였을 것이다. 학문적 연대의식이나 혈연을 매개로 한 동료의식은 류중영의 지위가 올라가고 정치적 영향력이 커감에 따라 더욱 공고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의 관료 생활을 통하여 그의 인맥은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방계(同榜契)라든가 동갑계(同甲契)에 그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66]

---

65) 류중영은 5월 26일에 안동에 와서 8월 23일까지 머물렀고, 9월 24일에 또 안동에 이르렀다. 김렴, 『묵재일기』 을묘 5월 26일(기미), 8월 23일(을유), 9월 24일(병진).

66) 『입암일고』에는 「乙亥同甲契會圖」에 나타나는 22명의 명단이 전한다. 류중영이 별세하던 해에 작성한 이 문서에는 노수신(이조판서)이나 정유길(예조판서)·목첨(도승지) 등의 고위 관료가 있는가 하면, 조순빈(사헌부 감찰) 처럼 참상관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가 확장한 인맥은 류성룡을 대표로 하는 자손들과 향촌사회의 동료들에게도 고스란히 활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위 관료를 역임한 류중영이 갖는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은 향리에 얼마나 머무는가와 무관하게 더욱 확대되었다.[67]

관료 생활을 통해 류중영이 관철하고자 했던 지향은 무엇이었을까? 두드러진 것은 그가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실천하고 보급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점이다. 성균관 재직 때부터 그가 권력과 다퉈가면서도 관철하고자 했던 것은 일찍이 김종직으로 대표되는 영남의 사림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보급하고 실현하는 것이었다. 지방관으로 나가서 향교를 수리한다거나 서원을 세우는 일, 또는 그런 교육기관에 재정적 기초를 마련해 주는 일, 직접 유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언적이나 이황의 저술을 인쇄하여 보급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일들은 16세기 사림파가 공통으로 가지는 관심사이기도 했다.

류중영의 사림적 지향은 풍산류씨 집안에 전하던 『소학』적 전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조부 류자온에서 류공작 · 류공권 형제, 류중영에 이르기까지 3대의 이름을 모두 『소학』에서 대서특필한 중국 당대의 인물인 류씨 집안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에서 보듯이 류씨 집안은 일찍부터 『소학』의 세례를 받았다. 『소학』에서 강조한 류공작 · 류중영의 가법을 류중영의 관료 생활이나 그것에 관한 평가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청주목사 시절에 백성이 한 줄기에 서너 가닥의 이삭이 달린 보리를 바치면서 선정을 치하하자 이를 임금의 덕으로 돌리면서도, 이런 일을 '상서로운 일이라고 중앙에 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보고하지 않았다[68]는 그의 처신에 관한 평가나, 가는 곳마다 관청을 수리하고 학문을 일으켰다는 평가는 거의 『소학』에 실려있는 '류공작-류중영 가법'의 판박이이다. 주자가례(朱子家

중견 관료까지를 망라한다. 그중 노수신은 뒷날 류중영의 신도비명을 지었다.

67) 류공작 남매화회문기에서는 노비가 33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류중영의 처 김씨의 자녀분금기에 의하면 노비만 해도 146명이나 될 만큼 경제적 기반도 크게 확장되었다.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157쪽.

68) 청주목사로 재직하던 중 청천현(淸川縣)의 진사 우탁(禹倬)이 특별한 보리를 가져와서 목사의 선정을 치하하였을 때의 기록임.

禮)에 따라 제사를 하고, 제사 지내는 방법을 정리한 서적을 보급한 것에서 보듯, 종법적 질서를 보급하는 데 앞장 섰던 것도 사림파의 행동 양식과 마찬가지이다.[69]

류중영은 권력자들과 갈등하면서 중앙 정계의 요직보다는 주로 지방관직을 전전했다. 흔히 수령의 기본 업무를 '농업을 장려하고, 호구를 증가시키며, 학교를 일으키고, 군정을 닦는 일, 부역을 고르게 하고, 사송을 간명하게 하고, 교활한 버릇을 그치게 하는 일' 등 일곱 가지로 규정한다.[70] 이를 다시 정리하면 농민의 생산기반을 보존·확대하고 잘 가르쳐 국가의 재정·군사·정신적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이 수령의 기본 업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럭 맥락에서 볼 때 류중영이 강조한 '위민(爲民)'과 '흥학'은 농민의 생산기반을 튼튼히 하고, 가르치는 일이었다. 관개시설을 수리하고, 농잠을 장려하는 일, 균세를 위하여 토호를 억압하거나 잡역을 대폭 정리하여 민폐를 제거한 일 등은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위민'의 행위였고, 향교를 일으키고 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거나 서원을 세우는 일 등은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다지는 일인 동시에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류중영은 몇 번이나 표창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류중영이 고심하면서 추진한 정책은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이다. 예외적으로 청주목사 시절에 세곡 운반 경로를 재조정하여 정착한 것이 있지만, 그가 시행한 새로운 정책은 대부분 후임자가 지속하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대지 않고 유능하고 덕 있는 이를 통하여 다스림을 이루고자 했던 인치주의적(人治主義的)인 지배구조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는 관료로서 류중영이 가졌던 근본적인 한계였을 것이다.

여러 사회적인 관행과 기득권과 부딪치면서 류중영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유능함이었다. 그가 사송 문서를 명쾌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거나, 음성만 듣

69) 「행년기」에서 류운룡은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기록 뒤에 평생의 삶을 요약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나열하였다.
70) 『경국대전』 이전, 「고과」.

고도 대리 고강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거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아전과 권력자의 기득권 체제와 맞설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신념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관료사회의 관행을 잘 알고, 자신의 실천윤리와 조응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이 있어야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초급 관료 시절에 사송·전곡 아문에서 단련받은 것들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어려서부터 관료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점이 중요했을 것이다.

류중영은 자신이 설정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때로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와도 맞섰다. 그런데도 그는 사적으로 개인을 비난한다거나 하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공과 사를 구분했다. 이기(李芑)와 윤원형의 앞잡이가 되어 횡포를 부리던 한지원(韓智遠)이 '세력을 잃은 후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으나 류중영만이 평소처럼 대해 주었다'고 술회한 것처럼, 개인적인 증오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정주목사로 부임하는 중에 길에서 병사 이사증(李思曾)과 마주치게 되자 굳이 융복(戎服)을 갖추고 예로써 대하였다는 데서 보듯이 공사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문신들이 무신을 홀대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류중영은 '병사는 사신(使臣)에 해당하니 사신과 수령이 만나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대인 방식은 갈등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냈고, 그것은 호의적인 평가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전 의주목사 아무개가 나중에 병사의 후보에 올랐을 때에도 그의 포용력은 두드러졌다. 자제들이 그 아무개의 무례함에 대해 분개할 때에도 그는 옛일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그의 인물됨에 관하여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도 '무인을 쓰는 것보다는 낫다. … 인재는 한도가 있는 법인데 그의 장점을 보면 된다.'라고 하여 개인적인 유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처럼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류중영이었지만, 조정의 공사로 시비를 논할 때는 조금도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원칙을 추구하면서도 남

의 허물을 들추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군자-소인 논쟁을 일으켜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급격한 개혁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기묘사림으로부터 얻은 지혜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류중영은 유능한 관리로서 온건한 개혁을 도모했던 인물, 전통적 사회 속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를 실현한 관료로서 주목할 만하다. 훗날 그의 아들 류성룡이 현실에 기반을 둔 경세가로 성장한 것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8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9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소학(小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겸암집(謙菴集)』(柳雲龍)
『동사약(東史約)』(李源益)
『명재유고(明齋遺稿)』(尹拯)
『묵재일기(默齋日記)』(金礪)
『입암일고(立巖逸稿)』(柳仲郢)
『택당집(澤堂集)』(李植)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출판부, 1979.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이우성, 『한국고전의 발견』, 한길사, 1995
구도영, 「16세기 조선 대명 사행무역(使行貿易)의 수출품 구성과 그 추이」, 『대동문화연구』 100, 2017.
구완회, 「조선후기 수령제도의 운영과 군현지배의 성격」, 경북대박사학위논문, 1992
김명자, 「16~17세기 풍산류씨가의 종법 수용 과정」, 『대구사학』96, 2005.
김준석, 「조선전기의 사회사상」, 『동방학지』29, 1981.
김학수, 「17세기 서애 류성룡가의 학풍과 그 계승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2014.
박연호, 「조선중기 동몽교육과정의 변화」, 『교육사학연구』2·3, 1990.
윤인숙, 「조선전기 향약의 구현을 통한 '사문화'의 확산」, 『동방학지』81, 2013.
이영춘, 「류중영의 <연경행록>」, 『조선시대사학보』32, 2005.
이태진,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 『한국문화』4, 1983.
한희숙, 「16세기 임꺽정 난의 성격」, 『한국사연구』89, 1995.

Abstract

Life of Ryu Jung-yeong as Government Official of Sarim Faction Origin in the 16th Century

Ku, Wan-hoe

Ryu Jung-yeong(柳仲郢) was from a sarim faction family in the Yeongnam province. For generations his family, Pungsan Ryu, had been connected with prestigious families by marriage such as the leader of sarim faction, Kim Jong-jik's Seonsan Kim family; powerful Andong Kwon family; a high-lanking government official and incorrupt government employee, Kim Kye-haeng's Andong Kim family. These connections made it possible for his family to grow into a influential family in Andong area. They named their members after Sohak(小學)and it shows his family respected Sohak's values which sarim faction pursued.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Ryu Jung-yeong began his low-ranking government official career in Seonggyungwan(成均館). Serving as a middle-grade official dealing with civil suits and finacial affairs, he prepared himself to be a government official in charge. While he worked in the central office and served as the governor of Yushin(維新), he was well-known for taking care of official work by the rules, causing conflict with his superiors, though. He had chance to experience the border area serving as the governor of Uiju moksa

and led provincial administration as kwanchalsa(觀察使, provincial governor) of Hwanghaedo province. He performed his duties of ruling big counties such as Jeongju(定州) and Cheongju(淸州) and died in office as jwaseungbuji(左副承旨) in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out his official career, he made every effort to put ethics of neo-confucianism into practice and popularize them. He took credit for renovating hyanggyo(鄕校, public school), founding seowon(書院, private school), supporting educational organizations financially, teaching, and printing and distributing Yi Eon-jeok(李彦迪) and Yi Hwang(李滉)'s writing.

Most of the policies he carried out, however, were temporary and they were likely to be reversed by his successor. Although he sticked to the rules and pursued reforms as a government official, he never found fault with others or reveal their weakness. He learned the lesson from the failure of his senior sarim scholars who pursued reforms by confronting authority through the so-called superior man vs. mean man debates. Later this attitude had a strong influence on his son, Ryu Seong-ryong to be an administrator grounded in reality.

Keywords
Ryu Jung-yeong, sarim faction, Sohak, superior man vs. mean man debate, Ryu Seong-ryong